

2018년 謹賀新年



신년사



사장 소진우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마음에서부터 남을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넓히고 풍성해 질 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했을 때 통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좁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을 때보다 믿음이 생긴 지금이 더 통이 커졌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식사 모임이나 술 자리가 끝나고 서로 지갑을 꺼내며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승강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식당에서 누군가가 자기 계산하겠다고 지갑을 꺼내는데 다른 일행이 그 지갑을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자기 지갑을 꺼내 계산하는 장면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내에서 기관활동을 하면서 회비 오천원, 만원에 시험되고 아까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들거나 속이 좁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회비 만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년에는 마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마음에서부터 남을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넓히고 풍성해 질 때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쌓여진 곳에서 오는 감사가 아닌 비워지는 것에서 오는 감사를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져 후덕함이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8년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즉 주님편에 서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꼭 들어야 할 말과 듣기 좋은 말이 있는데 성도들은 꼭 들어야 할 말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면 시험됩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본인에게 찢리고 아픈 말씀이라도 양약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2018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년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 사역 전개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독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한 해는 지난 2017년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종교계 등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북한과의 긴장은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ICBM 핵탄두로 우리 국민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들은 국가안정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뽑은 정치인들은 물론 공정한 잣대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 사법부까지 국민을 외면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과거에 국가를 위하여 일한 정치인들, 국정원 등을 적폐로 체포하여 수 많은 죄 목의 사슬로 무더기로 감금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종교로 정론직필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할 일부 언론이 진실은 없고 편파보도로 일관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못해 억척이 무너진다.

뉴스진행자들은 감정은 제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북한과 김정은을 존칭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제라도 언론은 나라의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을 갖고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기 위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나라를 살려야 한다. 게다가 우리 정치인들이 깨닫고 악법으로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오는 쇠사슬을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살길은 언론이 살아야 하고, 정치인이 살아야 한다.

신문방송은 문서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사여러분들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으로 묶어주셨다고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말이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세계를 향한 문서선교에 소중한 분들이다.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은 애독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선교에 자신감을 갖고 나돌 수 있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만 명이 있다. 분명코 우리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7년보다 더 나은 2018년을 우리에게 하락해주시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부흥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다. 분명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있다. 기도로 무장해야 산다.

신문방송은 문서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사여러분들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으로 묶어주셨다고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말이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세계를 향한 문서선교에 소중한 분들이다.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은 애독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선교에 자신감을 갖고 나돌 수 있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18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8신년하례 공고

표어 : 새해 새 마음 새 목회 (고후 5:17)

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김영국 목사 (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국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대상 : 목사, 사모, 교역자(부부동반) 12시 점심식사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사무)

살람! 2018년 새해에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며 놀라운 부흥과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배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교단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할 교회와 기관, 교단가
입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한기총 종교세관련, 청와대에 항의 방문 결의

한기총, 제28-7차 임원회와 제28-2차 실행위원회 각각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제28-7차 임원회와 제28-2차 실행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임원회는 29명 참석, 9명 위임, 실행위원회는 82명 참석, 16명 위임(44개 교단 및 단체 참석, 9개 교단 및 단체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정관운영세칙개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지난 28-6차 임원회에서 발의된 대표회장 후보자격에 관하여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목사)가 논의한 결과 제29회 정기총회를 2018년 1월 30일로 정했고, 정관에서는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명시하고 있기에 현재 선거관리규정을 수정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 없이 임원회로 넘겨 결정에 따라 것을 보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받아 현 선거 관리규정을 따라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안의 변경에 대한 입장의 견에 대해서 임원들은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종교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시행안이

아닌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수정된 기재부 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기재부 장관과 국회의장, 당대표들을 만나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원들은 성명을 내거나 대화하는 것뿐 아니라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수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항의 방문할 것을 결의했다.

예원교회 입당 및 360명 임직감사 예배 드려

교회창립 30주년기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360여명 임직

예원교회(정은주 목사)가 지난 10일(주일) 오후 4시 새 본당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캠퍼스 문화센터 건축 이후, 11년 만에 새 영적보금자리를 마련한 예원교회는 특별히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연일 축제 분위기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1987년 정은주 목사가 양천구 목동에 설립한 강서로교회를 모태로 하여 수도권 전역, 해외로 퍼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핵심집회, 화요집회 등 크고 작은 다량방 집회가 본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예원교회 입당예배에 앞서 본당입구에 마련된 테이프 커팅식에는 류광수 목사, 노현승 강서구 청장 등이 참석하여 성도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폭죽이 발포되고, 이어진 감사예배는 정은주 목사의 묵도과 송영으로 시작됐다. 총회장 조경삼 목사(엘림교회)

기도를, 강서노회 장 이구연 목사(세우는교회)의 성경 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류 목사는 "앞으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예원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고 앞으로 받을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라"했고, "메이슨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이라며 미션을 제시했다.

이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포함 총 360여명이 임직을 받았다. 당회장 정은주 목사의 서약에 이어 류광수 목사가 장로에게, 최정웅 목사(참사랑교회), 김승수 목사(동석교회)가 집사에게, 정학채 목사(영



광교회), 서금석 목사(당곡교회), 이상배 목사(포항영광교회), 김대은 목사(경인임마누엘교회)가 권사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권면 및 축하 시간이 이어졌다. 내용화 목사(렐넌트신학연구원 석좌교수), 강태홍 목사(일산영광교회), 장인성 목사(사랑교회), 김대은 목사가 중직 자 및 교우에게 권면을, 조은택 목사(새소망교회), 김운복 목사(부총회장, 서해제일교회)가 축사를, 김서권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축시를 전했다.

아울러 입당 및 임직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되고, 임직자 대표 백원권 장로가 임직패 수여, 건축관계자 감사패 증정, 김동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를 넘어선 목사의 성범죄 대책은 없는가?

목사의 성범죄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이단으로 규정해야

극악무도한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 뉴스사이트를 거의 매일 장식하고 있다.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항상 뉴스의 조명을 받는다. 그만큼 목사란 가장 높은 도덕성과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순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줄

줄이 쇠고랑을 차거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니 한국교회와 사회에 가장 부끄러운 수치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올라온 목사관련 성범죄사건들

세상의 온갖 성범죄와 유사한 사건들이 교회와 목사에게서 발생할 때 마다 한국교회는 신음한다. 이것이 마치 한국교회의 타락상으로 치부되고 더 이상 교회와 목회

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부 빛나간 목사의 성범죄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목사의 대다수는 남성이고, 성도의 대다수는 여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목사의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반성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개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또는 교회(교단)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감추어 오거나 사실이 드러나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결하려하거나 숨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장합동의 J 목사의 성추문 사건이다. 지금도 해당교회는 성범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단은 이를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해 한국교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한 사건들을 보면 ▲목사가 함께 사는 딸의 친구를 몰래 훔쳐보려고 욕실에 '몰

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강사로 이름을 떨친 목사가 지난해 9월 17세 여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선고를 확정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10대 초반의 아이 두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북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아동센터에서 B양(당시 7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목사 자신과 관련된 교회내의 성범죄이다. 이제 목사의 성범죄를 더 이상 개인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이단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또한 목사가 거룩한 영성 회복과 높은 목회 윤리를 회복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행동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인: 파종진 목사 명예이사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통화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2018 謹賀新年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허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성서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귀어찌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視務牧師 서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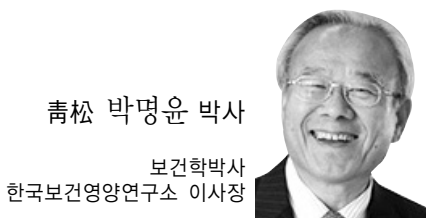
同事牧師 지봉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2, 010-3710-9119

■ 靑松 건강칼럼 (612) 의사사고, 자살 등

신생아(新生兒)와 K팝 가수의 죽음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미숙아(未熟兒) 16명 중 4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16일에 발생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맴버인 김중현(27세)씨가 우울증(憂鬱症)으로 자살했으며, 21일 오후에는 재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34명의 귀중한 생명을 즐지에 잃어 우리나라 국력에도 손실을 가져왔다.

몸무게가 2kg이 안되는 미숙아를 안아보면 깃털보다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미숙아들은 이를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방동실로, 그리고 하얀 상자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옮겨져 부검(剖驗)을 받았다. 장례 관습에 따라 아기의 장례식에는 빈소(殯所)가 차려지지 않아 19일 오전에 화장장으로 갔다. ‘엄마’ 소리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부모 심정은 가슴을 무너지게 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결론이 나기 전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료진 실수 같은 인위적 요인 없이 어떤 질병이나 감염 때문에 8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숨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으로 평가되는 인큐베이터(incubator)는 1880년 프랑스 산부인과 의사인 에티엔 스테판 타르나에가 이집트 상형문자(象形文字)에서 보았던 ‘닭 부화기(孵化器)’에서 영감을 얻어 가금류 사육사인 오필 마틴의 도움으로 갓난아기에게 적합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다.

당시 인큐베이터 설계는 매우 단순하여 위쪽은 아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아래는 석유편프로 가열된 물을 넣어 위쪽의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게 했다. 그리고 아기는 가장 위에 위치한 칸막이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었다. 1880년 이후 인큐베이터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복잡한

장비로 대폭 개선되었다.

현대 인큐베이터에는 특수 보육기와 인공호흡기 등 고가의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의료진도 여럿 명이 있어야 하므로 인건비 지출이 일반 병실보다 높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病床)당 간호사 인력은 선진국에서는 2~3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04명(2015년)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집단 사고 당시 미숙아 16명에 간호사 5명이 근무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소독, 처치, 수유 등을 하느라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려 이직률이 3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 인큐베이터 한 대당 1년에 수천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문제는 출산율과도 직결되므로 의료수가를 올려서 충분한 의료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인큐베이터의 사용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정 사용 기간을 7~10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인큐베이터는 19대이며, 절반 가량은 사용한지 1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7월 기준 전국에 총 3428대의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이 중 10년 미만은 1609대(46.9%), 10년 이상은 1221대(35.6%), 나머지 599대(17.5%)는 제작연도 미상이다.

인큐베이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세척 등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즉,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기기 오작동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있다. 인큐베이터는 습도와 체온 유지를 해주는 기계이므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내부에 습기가 생겨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 출생 조산아(早産兒) 비율은 2009년 5.7%에서 2016

년 7.2%로 증가했으며, 체중 2.5kg 미만인 저체중아(低體重兒) 비율도 4.9%에서 5.9%로 늘었다. 저체중아 생존율은 출생체중이 1kg 미만이면 69.9%, 출생체중 1.5kg 미만이면 84.8%이다.

저체중아와 조산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은 114곳에서 98곳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총 1716개 병상이 있다. 고령 출산의 증가로 미숙아 출생은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전체 신생아의 6.9%로 3만408명에 달했다. 그러나 미숙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1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정부는 인큐베이터(보육기)와 고막절개술 등 3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6개 항목 중 과잉진료 가능성이 적은 인큐베이터 등 13개 항목은 기존 제한 자체를 없애고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저체중아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경우 현재는 7일까지만 무료이고, 이후부터는 1일 1만 9630원을 내야 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맴버 중현(본명 김중현·27)은 18일 낮 12시경에 서울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Residence)에 찾아와 2박을 예약했으나, 오후 6시 10분쯤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미국 ABC, 영국 BBC 등은 인터넷 속보로 “K팝의 슈퍼스타가 떠났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판 기사로 “중현의 소식을 들은 K팝 팬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에서도 소셜미디어 추모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대만 등 해외 매체들은 취재자 빈소를 찾았다.

김씨의 누나는 18일 오후 4시 40분경에 “중현이가 자살을 하려는 것 같다”면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누나에게 “나 보내 달라, 고생했다고 말해 달라” “마지막 인사다” 등 자살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뛰어난 가창(歌唱) 능력에 작곡 실력까지 겸비한 실력과 가수인 중현도 ‘연습생’ 시절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연습생들은 10대 때부터 기획사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하루 17시간 정도 춤과 노래 연습을 한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회화(社會化) 과정을 겪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현도 연습생으로 3년 정도 보낸 후 데뷔했다. 아이돌 가수들은 성공에 대한 압박감,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악성 댓글 등으로 심한 중압감에 시

달리고 있다.

중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고 말했다. 중현은 자살 계획을 세울 만큼 우울증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으므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했었다. 과거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탈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을 자살(自殺)로 몰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2010년 이탈리아 최고학의 문학상인 ‘모렐로상’을 수상한 사회학자인 마르치오 바르발리(Marzio Bargagli)는 그의 저서〈자살의 사회학(원제목: 세상에 작별을 고하다·Farewell to the World)〉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대가인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자살론〉(1897)을 논박한다. 바르발리는 사회의 ‘통합’과 ‘규제’를 변수로 놓고 현대의 자살률 변화를 내다본 뒤르켐의 예측이 유효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자살의 유형을 재정립하여 통합과 규제라는 변수 대신 ‘누군가를 위한 자살’과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자살’로 크게 나누었다.

우울증(憂鬱症, Depression)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마음의 병’이다. 우울증은 우울감(憂鬱感)과 의욕 저하가 주요 증상이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이에 성격저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학교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살(自殺)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진 것이나 개인적인 낙담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다. 우울증의 분명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원인(생화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이 야기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인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울증 발병률이 약 18% 증가했다.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수면(睡眠)습관 등의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영위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나 주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까지 심해지지 않는

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WHO가 권고하는 우울증 대응책에는 ▲당신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하여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당신이 잘 지내던 때 즐겼던 활동을 유지한다, ▲가족, 친구 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식사와 취침을 규칙적으로 한다, ▲술은 줄이거나 피하며, 불법적인 약물 복용을 피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나면 전화로 도움을 받는다, ▲당신이 우울증 환자인 것을 인정하고, 기대치를 조금 낮춘다 등이 있다.

우울한 기분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감기와도 같다. 감기(感冒)에 걸려 어떤 사람은 콧물, 재채기가 나와도 참고 견디다 보면 감기가 저절로 낫기도 한다. 그러나 독감(毒感)의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된다. 우울증도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더욱 심각해지면 자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긴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신에 대한 부정이며, 이러한 감정에 빠지면 미래와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중단하기 쉽다.

우리가 감기를 가볍게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감기약을 먹듯이 우울증도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신경전달물질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의 문제를 파악해 잘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이상이 호전될 수 있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다. 우울증 치료는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중년 이후 유병률(有病率)이 증가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진을 현재 40세와 66세에 실시하던 것을 40·50·60·70세 등 10년마다 실시한다. 그러나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는 특정 연령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40세 이전 연령층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WHO에 따르면 우울증은 여러 정신질환 중 사회적 부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영에 속한자인가?

“너희 속에 하남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롬 8:9).

손용재 목사
이지불코리아 대표
칼럼리스트



1. 여기에 너희 속(내적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욥 2:18). 오소절 성령강림은 약속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요 14:16).는 육체와, 그들 속에 부어 주셨다. 병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일은 외적으로 일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도구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고전 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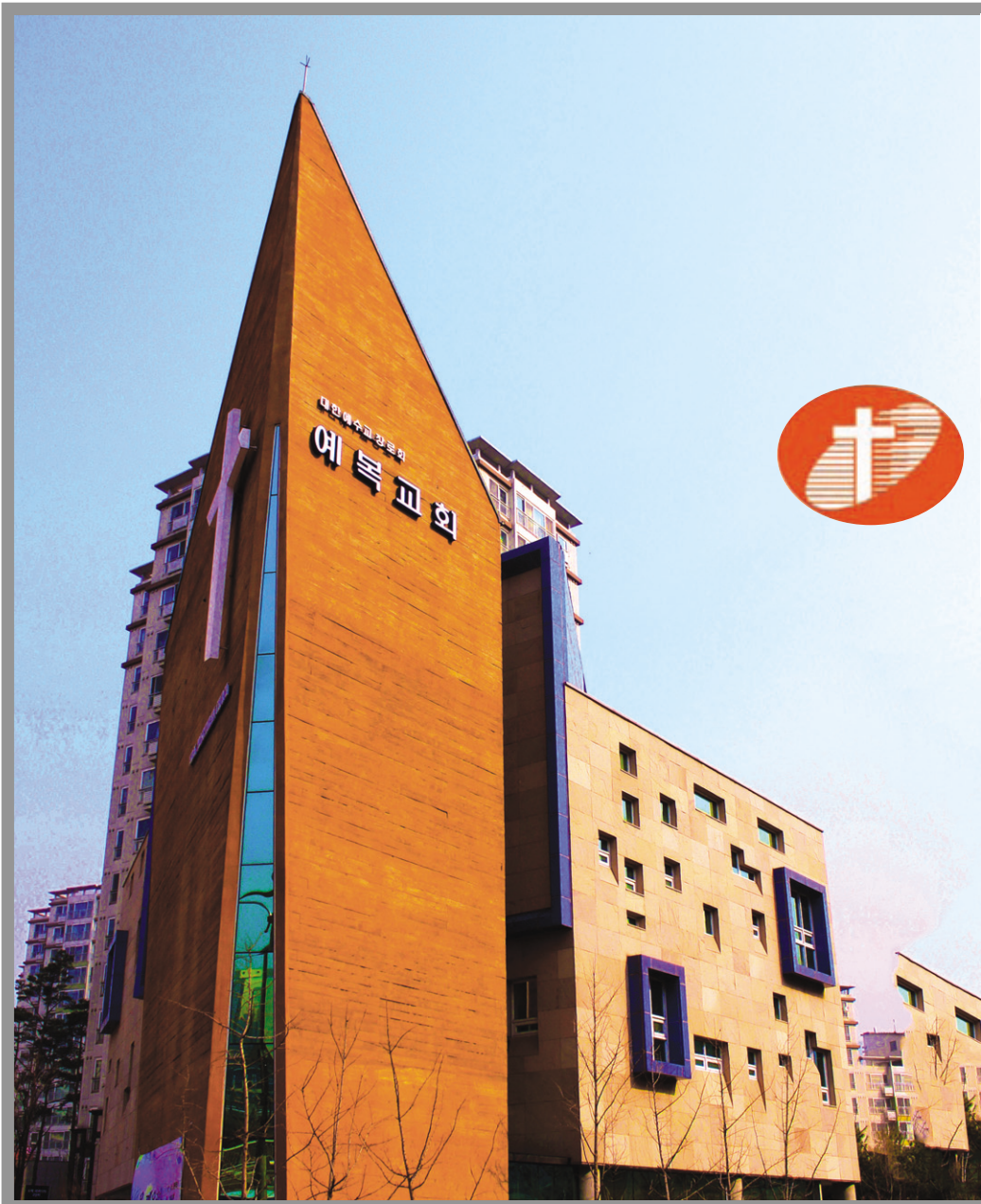
2.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히 6:4-6).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와 서로 상반되게 보인 내용이 아닌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져도,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 지라도 소용없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유익이 없다.(고전13:1-3)” 사랑이신 예수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타락한다와, 나) 예수그리스도영을 받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다. 천국까지다.

3.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드는 나의 영원’ 성령을 단비로 표현하고 있다. 외적인 것이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씨에 따라 열매를 맺으므로 그리스도 씨를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히 6:7). 비는 씨를 자라게 돕는 것이다. 그 씨가 하늘 생명 예수의 씨냐? 가라지, 엉겅퀴 마귀의 종자이냐가 문제이다.

4. 좋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마귀요, 추수 낫은 천사들이다. 성령의 육체적 체험은 예수영접 한 자와 미처 영접하지 못한 자가 함께 경험한다. 외적인 많은 경험을 해도 비가 아무리 흠족하게 내려도 씨가 어떤 종자이냐가 중요하다. 비가 그 땅을 적셔도 각종 은사가 마음에 충만해도 성령에 참여 한바 되어도 씨가 열매를 결절한다.

5. 눅 10장20 절에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고, 마 7장22 절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불법을 한 자들이라고 떠나가라고 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란 외적으로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자가 아닌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마 7:24). 하신다. 그러면 반석위에 지은 집이라고 “자녀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예수이름을 믿고 그 계명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속) 거하신다”(요일 3:24). 여기서 행함이란 새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을 얻게 하는 행함이다.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약 2:17). 자신도 구원 얻지 못한다(약 2:17).

7.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은 무엇인가?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긴다”(요일3:14).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불법을 한 자들은 결국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이 그 안에 없기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 얻게 하는 행함이다”(요일 3:23).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예수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 축 2018년 근하신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능자의 손이
우리과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예/배/안/내

대 예 배

1부 : 오전 9시30분, 2부 :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수 요 예 배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 도 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 2018년도 신년사 |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새해에도 모든 것을 넉넉히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렘29: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비전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년을 맞이하여 세 가지를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어나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총회와 노회 아울러 산하 지교회와 담사.’ (사 60:1-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총회가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새해는 국가의 안보위기, 지진, 사회 적불안과 Post-modernism 철학사상으로 인해 진리가 혼잡하고 동성애, 이슬람 문제 등으로 복잡한 사회속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해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며 병든 영혼 일어나게 하여서 어둔 세상을 밝히는 살아있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국사회 곳곳에 있는 에스겔 골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사명자답게 일어납시다.

둘째,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총회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닮아야 합니다. (고후5:17)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2018년에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고 변화된 모습의 총회원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목회자답게, 양을 치는 목자답게,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변화되고 개혁되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주변사회와 국가가 변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하기 위하여 <겔36:25-27>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호와와 영을 부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총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빌3:12-13) 그렇습니다. 과거집착하지 말고 현재 충실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 미래를 행하여 전진하는 총회원이 됩시다.

셋째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총회를 만듭시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시편37:7)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성장,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 교회마다 전도, 양육, 파송하여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노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되고 총회가 성장하며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2018년도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웨신가족 여러분의 가족과 지교회, 노회, 총회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에 신년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웨신총회
총회장 허창범목사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한기보협 제11회 신학세미나 성황리에 종강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강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신학위원회(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지난 12월 14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학위원회 신학철 목사(예장총회합동제일)의 사회로 제11회 신학세미나가 종강으로 진행되어 2018년도 신학세미나를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활짝 웃으면서 매시간 강의를 맡아 줄 강사의 역량과 섬기는 교단과 신학교, 시무하는 교회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신학위원장의 행복지는 모습이다.

첫 강의에 나선 임준재 목사(예장개혁합동 총회장)는 “영의 기능과 성령 은사”에 대해 강론하면서 1. 영의 지적 요소인 직관의 기능 회복에 따른 성령 은사, 2. 영의 정적 요소인 양심의 기능 회복에 따른 성령 은사, 3. 영의 의지적 요소인 영교의 기능 회복에 따른 성령 은사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1) 영의 지적의 요소인 직관의 기능이 있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2) 영의 정적의 요소인 양심의 기능이 있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며, 3) 영의 의지적 요소인 영교의 기능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했다.

또한 박형철 교수(한우리교회 담임/예장총회총회 신대원장)는 “성경원형 회복적 설교방법”을 주제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 원형회복적 설교’에 대해 성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열거에 많은 목회자들로 도전을 받게 했다. 박 교수는 이날 야고보서의 정체성을 서두로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흠어진 유대인들이며, 그



편지를 받는 상대들의 영적상태에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관과 은혜를 중심한 구원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행함이란 일반적 성도들에 관한 대상이기 보다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서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야고보와 바울의 입장을 각각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본다면 둘의 공통점은 오직 예수만을 중심으로 믿음을 유지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가리치고 있다면서 강의를 했다.

세 번째 강의에 나선 예장영신총회신학교 학장 선한규 교수(예수생명교회)는 “성경의 언어 이해하기”를 주제로 ‘안식과 주일’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씀을 중심해서 강의했다. 결론부분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서는 주일에 예수그리스도로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주일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지 예수님의 뜻에는 없다고 했다. 첫 열매를 과실로 예배당에 풍성히 쌓아놓는 것도 좋지만 더욱 좋은 것은 자신들이 열매가 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 곳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주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부활생명의 복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산 생명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날이며,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기원했다.

이어 예장진리 총회장 장한국 교수(주사랑교회/지저스타임즈 부이사장)는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대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장 교수는 단 12:1~7절을 내용으로 1. 다니엘로 계시한 주 재림과 메시아 왕국



국제구호개발기구 게인코리아

포항 대학생들 대상으로 트라우마 카운슬링 진행

국제구호개발기구 게인코리아(대표 최호영 목사)에서 포항의 지진피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카운슬링을 진행했다. 한동대에서 진행된 트라우마 카운슬링은 상담전문가인 게인코리아 임에리간사가 1대1 또는 2대1로 학생들을 만나 상담기법을 통해 트라우마를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동대, 선린대 등을 비롯한 포항 지역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하여 상담을 통해 지진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작은 소리에도 심하게 놀라기도 하였고 건물 안에서 일반인들은 느끼

지 못할 진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한 학생은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개척교회가 피해를 입어 교회의 집을 자신의 방으로 다 옮겨놓았는데 지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지진상황이 계속 생각나서 맘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에 의욕을 상실하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이 상담을 진행한 임에리 간사(GAIN Korea 프로젝트 팀장)는 “포항의 학생들이 지진으로 인해 생각한 것 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 상담을 통



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게인코리아는 지난 2009년 4월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 타지니아, 베냉, 토고를 비롯한 5개 나라에 33개의 우물을 파주어 3만 3만천 명의 주민

건설에 대해 즉 교회에게는 주 재림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중심한 일관성 있게 계시한 종말계시임을 서두로 1) 단 2장의 뜨인 돌과 하나님 나라 해석, 2) 단 7장의 작은 뿔은 종말의 적그리스도요, 단 8장의 작은 뿔은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이며, 구약 이스라엘을 짓밟은 잔인무도한 실존인물, 그가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함을 계 17:8에서 연관계시 해 주고 있다고 했다.

2.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있으리라(단 12:1), 3. 이 큰 환난을 통한 성도(하나님 종들) 구원계시(단 12:2~3), 4. 강물 위 세마포 입은 분의 구원역사 계시(단 12:5~7), 5.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합하라(단 12:4), 결론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사는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마 24:45),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양 무리들을 오늘날 큰 환난을 앞둔 주 재림 임박한 이 때에 다른 말씀으로 증거하여 신앙 승리토록 인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라고 강론을 마쳤다.

한편 1강 임준재 교수, 2강 박형철 교수, 3강 선한규 교수, 4강 장한국 교수 등의 강의는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http://jmntv.kr>에서 약 4주간에 걸쳐 편지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라오스 등에 게인스쿨을 운영하면서 신앙훈련을 통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아이트 대지진, 일본 쓰나미, 파키스탄 대홍수 등 지구촌의 어려움에 긴급구호를 통해 함께 하였다.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팀을 파견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네발 트리부탄대 학교에 IT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조라엘지역의 세 개의 학교에 컴퓨터 20대를 기증했다. 또한 조라엘지역 커뮤니티보건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청주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게인(GAIN)은 11개 국가에 설립되었으며, 지구촌 52개 필드 현장을 갖고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부목사 : 김미경 협동목사 :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 공재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 이창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 오후 1:30
수요예배 : 저녁 7:00
새벽예배 : 새벽 5:00
금요철야 : 저녁 8:00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2018
근하신년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영무에다움 2차 후문 앞, 수완중영)
TEL:8(062)953-4620 H:P:010-8604-6075

마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부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푸른솔노인복지센터

요한계시록 4장(33)

환란 날에 14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순교한 자가 받는 금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

구약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은 12사도가 기초가 되어 신약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데, 그 성벽의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고, 12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의 문이 되고 그 성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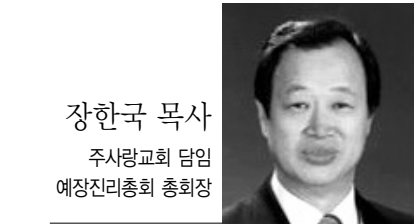
또한 신약의 끝자락에 있을 7년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24보좌에 앉을 자들입니다. 환란 날에 14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1,260일 동안 사령 감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보이나요? 24보좌가 여러분이 앉을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순교의 과정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썼더라 - 신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에 따른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요? 순교한 자가 받는 금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24장로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24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환란 날에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써워주는 면류관이 금 면류관이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목표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천당의 문지기만 되어도 족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언뜻 보면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아버지는 계 4:4절 말씀을 통해 기존의 우리의 사고와 틀을 깨트리시고 하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것으로 주십니다.

5절 그 보좌에는 변경들과 천동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본문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는 것은 하늘 영광의 빛을 번쩍하고 비쳐서 우리로 하늘 영광을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천동들이 그 보좌에서 나옵니다. 욥 26:14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레에 비유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천동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전리총회 총회장

지게 합니다. 그 능력을 이루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기에 어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계 21:23).

그러면 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나요? 이는 사도요한의 심령을 밝히는 등불이고 하나님의 종들(계 1:1)의 심령에 일곱 등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영, 곧 성령이 일곱 등불같이 환히 밝혀서 사도 요한과 우리 속에 어두움이 전혀 없이 성령계 100% 장악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 6:7장에서 스테판을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테판을 계속 더 충만케 해서 결국 일곱 번째로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순교하게 해주셨습니다.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 '수정'은 투명한 결정체여서 막힘이 없어 다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대하 4:6 솔로몬 성전에 물대야, 바다를 두었습니다. 물대야에서 제물을 씻고,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었습니다. 본문의 하늘 보좌는 그림자인 솔로몬 성전의 실상이요 참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으므로 실상인 하늘나라에도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제사장의 몸을 씻어야 됩니다.

사도요한은 참 성전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는 24장로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24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될 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보좌 앞에 서는 자는 곧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투명하고 깨끗해서 그 곳에 서는 사람의 겉과 속도 그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므로 어두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투명하여 막히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예수님같이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과 같이 예수님같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될 수 있나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역사입니다.

먼저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 앞에, 빛 앞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육신이 즉시 끊어졌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육신은 죽지 않아도 그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죽은 자와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분이 육신으로 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내게 덧입혀졌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 성전인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다에 선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우리의 겉이 깨끗한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케 하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나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존재이신 말씀(헬: 로고스)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먼저 말씀의 것(그리스도의 것)이 된 후 계속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 두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진 그 부분은 말씀의 인격으로, 말씀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더해가면서 자기 속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17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빌

(지나호 이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려면 그 전에 예표를 보여 주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 예표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 주셨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셨고 가죽옷을 입혀 육신적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죄악이 관영하여 모두 홍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다. 세 번째는 출애굽 때 바란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 불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왜 하필이면 뱀을 매달게 하셨을까? 살아있는 뱀을 매달게 할 수도 있고 목각을 깎아 매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뱀의 구리 75%, 주석 25%의 합금으로 만든다. 뱀의 성질은 상한 음식이나 독이 들어오면 색이 변하는데, 불에 강하고 물기만 제거해주면 녹슬지 않으며 색이 변하지 않아 당시 여자들의 거울로도 사용되었다. 또 더운 음식이나 찬 음식을 안 가리고 보온, 보냉해 주는 성질이 있다. 뱀의 이러한 특성은 죄를 미워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뱀에 이어 반제단도 그 바깥은 놋그릇으로 되어 있고 얇은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에 쇠를 씌워 변함없는 예수의 성품을 상징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8-9).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원의 조건을 상징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물려야 하리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파져있는 죄라는 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로 씻어야만 한다. 그동안 불뱀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불평을 했다. '예수께서 가리사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14:6).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재론할 여지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이 엄연한 진리를 붙잡으라.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롬 8:3).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죄(불순종, 창 2:17). 죽음(창 3:13). 하나님의 긍휼(짐승의 피)(창 3:21). 구원(짐승 가죽)(창 3:21)

*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짐승 가죽으로 육신적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마귀의 자손이 되었다(창 3:2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애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신 21:23)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사 45:22)

네 번째는 성막 제사법으로,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들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서정이 복잡하지 않았으나, 이 네 번째 성막 제사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구원 계획(Plan)들이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게 하셨는데,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과정과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훈련시키셨다.

◆구약사건의예표들

죄(불순종, 창 2:17) 죽음(창 3:13) 하나님의 긍휼(짐승의 피) (창 3:21) 구원

(짐승 가죽) (창 3:21) 죄의 관영(창 6:5-7) 노아의 방주(창 6:14) 구원(창 7:23) 불뱀(불평, 민 21:4-9) 뱀뱀(높이 달림) 구원(바라보라) 죄인(사망, 레 1:1-9) 반제단(피뿌림과 제물 태움) 구원 죄인(멸망, 지옥, 히 9:12-15) 예수의 대속(보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히 9:23-28; 10:1-10) 구원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모두 죄 때문이요, 둘째는 구원의 조건이 피와 높이 달림과 관계가 있고, 셋째는 구원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진행과정을 볼 때 막연했던 예표들이 성막의 반제단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3.대속적죽음과구원

1) 형틀과 제물 /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은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던 높은 장대 위에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하셨다. 뱀뱀이 없는 장대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뱀뱀이 달렸기에 생명을 살리는 장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일러 반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나 그 반제단도 불도 제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는 당시 죄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형틀에 불과했다. 이 십자가는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체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전능자, 완전자, 온전자,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거기에 달리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 달려서도 안 되고, 달릴 수도 없으신 분이 달리셨으니 말이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고, 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왜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곳에서 못 박히셨으니 말이다. 그분이 아니면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한 번 달리면 그것으로 끝인 죽음이었고, 죄수들이 달려 최후를 맞는 형틀에 불과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니 그 치욕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축 2018 謹 賀 新 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담임 이준복 목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진 목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장대일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이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마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살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열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집 회 안 내
◇ 매일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회 주관)
◇ 매일 셋째 주(월-목)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회의 주관)
◇ 매일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원장 노은총 목사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백운성 목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 특양칼럼 -1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사람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원수마귀)의 청지기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겔사람)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새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인 우리의 겔사람(옛사람)을 무덤에 장사한 지내면 됩니다. 우리하고는 더 이상 상관인 없는, 더러운 시체가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거부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새사람)은 나이가 늘고 우리의 겔사람(옛사람)은 나이가 줄어들므로 영혼이 잘 되어(속사람이 겔사람과 몸을 지배하여 법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원수마귀가 우리의 겔사람(옛사람)을 통해 열기내기를 원할 때 “원수마귀야! 열기 내던 겔사람(옛사람) 이미 죽었어! 난 나(새 사람-속사람)하고 상관인 없으니 물러갈지어다!”...뿌!

7.0세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먼저 죄란? 우리 안에서 범죄하게 하려고 우리를 종용하고 지배하려는 능력이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로 나를 죽였는지라”(롬 7:11).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19~20). 이 죄로 인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랑이 온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죄하고는 상관인 없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롬 8:9~10).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7~18).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이 사실을 믿고 죄(원수마귀)를 대적한다면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

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그러므로 죄(원수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2~13). 우리의 몸은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이기에 원수마귀(죄)가 주관 하여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리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속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흠을 먹을지니라”(창 3:14).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하심 같이 우리의 몸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영이 거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육입니다. 육인 우리의 몸은 흠으로 지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마귀(죄)가 물고 뜯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이루고 온 영을 이룬다 해도 원수마귀(죄)를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위해 살려 두시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선출로 알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죄)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심 같이 시험이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원수마귀(죄)는 인간 경작을 위해 살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역사적 고찰

1 해방 이후 현대교육과 사회적 영향

1). 해방과 교육

해방 정국에서 치열한 이념대립을 벌였던 좌·우익은 교육에서만큼은 인식을 같이했다. 우익 계열의 한국 민주당은 대중 중심 민주적 교육제도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강조했고, 좌익 계열인 조선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 교육 청산을 주장하고, 모든 민중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국가에 의한 9년 이상의 의무교육 그리고 학원의 자치, 연구 및 학생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진영은 의무교육을 강조했고,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과 성인교육 중시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방 정국의 사회상은 위와 같은 교육개혁안들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부족과 열악한 교육재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때문에 교육은 생 각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국가 원형을 구축한 시기이자, 오늘날과 같은 교육의 모습을 다진 중요한 시기이다. 미군정이 내걸었던 교육정책의 목표는 “민주적인 독립 국가에 필요한 적합한 교육제도의 수립을 향한 한국인들의 노력을 돕는 것”이었다. 군정 당국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군정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약소국에 대한 비민주적 지배라는 수단을 통해서였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식 교육이 우리 교육의 원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 교육 제도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 있던 사람들과 미국인 전문가 요청과 유학생 파견 등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졌다.

미군정 하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6·3·3·4제 학제가 도입되었고, 문교행정기구가 정비되었으며, 교육 자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미국의 교육 제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육이 서구 중심 교육 체제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미군정 하에서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출현하였다. 일제가 유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친일 지식인과 지배층을 양성하



김창룡 목사
하나님미디어인하교회
국제문화예술 선교사학원

여 조선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던 것처럼, 미군정 당국 또한 유학생 제도를 한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 유학생과 미국식 사고와 습성에 친숙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전쟁은 통일 정부의 가능성을 무산시켰으며, 남북이 교육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길을 걷게 하였다. 한국 전쟁은 좋은 학교와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일류와 이류 구분과 같은 학교의 위계적 서열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육기회와 학력주의는 이처럼 확대 재생산 된 것이다. 한편 교육 자격은 일종의 직업자격이 되었는데, 당시 고등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 제한 규정을 둔 것에서 교육자격을 직업자격화가 강화되었다.

2. 국가주도 교육의 전개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은 국가의 ‘과대 성장’과 시민사회의 ‘과소 성장’으로 철저히 국가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었다. 국가에 의한 교육 문제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었다. 군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었지만 ‘잘 살 아보세’로 대표되는 ‘경제 근대화’를 지배 전략으로 채택하여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이 정권의 지배 구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전위로서 동원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하는 경제계의 요청에 반응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교육의 도구화를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포퍼는 공리주의는 ‘닫힌 사회’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견하였는데, 교육이 사회공학에 근거한 공리주의에 따라 도구적으로 사용될 경우

에, 여성, 특정 지역, 특정 분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교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실제로 교육은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과 농업,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회생을 바탕으로 하는 불균등 발전 속에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이라는 두 유형의 불균등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 전쟁이후 점점 교육기회도 확대되었다. 교육기회가 확대된 것은 낮은 수준의 노동력 양성을 위한 경제적 의도와 통치 이념 교육을 위한 정치 사회화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능력의 확대와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교육을 인식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궁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형적’ 학력주의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었으며, 학교와 정공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더욱 좋은 학교와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일류와 이류 구분과 같은 학교의 위계적 서열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육기회와 학력주의는 이처럼 확대 재생산 된 것이다. 한편 교육 자격은 일종의 직업자격이 되었는데, 당시 고등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 제한 규정을 둔 것에서 교육자격을 직업자격화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학력 제한 요건은 교육 자격을 직업자격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적어도 공직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였다. 고학력을 추구하는 사회 풍토를 시정하기위해 1972년 공무원 임용에서 학력 제한 조건이 사라졌지만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가지지 못하였다. 시험 수준이 일정한 학력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한 정도의 학력 경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된 억압과 폐쇄적 사회는 교육을 그러한 사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유순한 인간상이 강조되고, 길러졌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간주되었다. ‘길들여진 심성’ (domesticated minds)은 우리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였다. 민중들은 늘 교육적으로 어리석은 존재로 간주되어 계몽의 대상이었다. 5·16 군사 정부는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운동’을 선언하였는데,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활동의 지침으로 활용된 국민교육헌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도교육의 대표주자인 학교는 저항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은 사회적으로 유일한 정권 도전 세력이었는데,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기점으로 학생 운동은 그 이유가 학내 중심에서 반정부 운동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성장한 학생 집단과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은 정권의 부도덕성과 아편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가 예기치 못한 교육 성장의 효과였다. 1960년 4·19혁명, 1970년대의 유신 체제 반대운동,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수요목기의교육과정(명복후-1954년)

일본 강점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된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한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일제시대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채로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놓지는 못하고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교수요목기에는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힘을 쏟았으며 분과주의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知力)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흥인 인간의 정신에 일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제시대의 잔재를 정신, 생활면에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 불과하였고, 내용과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비해 너무 높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시간을 보면 교수요목에 준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므로,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축 2018 謹 賀 新 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진서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장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성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담임 박민규 목사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88(구. 음암동 601-65 3층)
☎ 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벚엘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통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담임 박연자 목사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한국교계, “종교인과세 시행령은 기독교 탄압”

당초 기독교계 합의안 정부가 일방적 개정해

천신만고 끝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과세제가 그동안 종교계와 소통 협의를 진행해온 기재부가 아닌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6개월간 진행된 정부와 종교간의 협의정신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12.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소득과세 모법의 취지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된 채,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활동 감시와 탄압을 가져오는 악법으로서, 정교감등을 초래함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제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가 갑자기 등장한 편가르기식 지시로 국회를 통과하고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부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소득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



의하였으나,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함을 당부하였으며, 11월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그 법적 원칙과 신의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 12월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안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독교에서는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인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회계하고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도 교회

명목의 통장과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등 공적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소속 교회에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부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부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이다.

만일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총리가 말한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며, 법정신과 신의를 지켜야할 정부가 먼저 위법하고 협의를 파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기에 이제 국민 누구나 법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하여도 닦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벌어진 모든 조세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모두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정신 파괴로 인한 책임임을 역사 앞에 밝히려 한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75개 회원교단, (사)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교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교단,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회원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 2017. 12. 22

코이노니아선교회 Wings of Joy 100회 자선공연

기념 감사예배... 자원 봉사자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가져

노년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복음 전파를 통한 실버세대 영혼구원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산하 “Wings of Joy” 자선공연단 100회 공연 감사예배와 자원 봉사자에 대한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12월 18일 오전 토렌스시 소재 Torrance Care Center West(4315 Torrance Blvd. Torrance, CA 90503)에서 있었다.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은 2009년 11월 1회 공연을 시작한 이래로 매달 한번 자선공연을 개최해 온 것이, 이날로 100회 공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날 공연은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등 악기연주와 찬양무용, 성악, 하프 연주(특별 순서)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희 목사는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딤후 4:7) 제 목의 말씀 선포를 통해, “결순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



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답대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주회를 마친 후에는 이 선교단체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이날 수상자들은 자선공연단의 단원으로서, 양로병원 심방자로,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교실 봉사자들로 많게는 8년, 적게는 1년 이상 봉사한 자들이다. 수상자는 총 11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은숙, 최순식, 윤은주, 자녀님, 박 새미나, 박 타미나(금상),

신은희, 김병숙, 김흥섭, 한원정, 한현정(동상).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는 우리 주변의 노인과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선교단체로, 2009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박종희 목사가 다문타운에 소재한 한 양로병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됐다. 지극히 작고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 2017년에 이르러서는 연중 20곳이 넘는 양로원, 양로병원, 그리고 노인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8,000여 명의 환자와 독거노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제후사 크리스천헤럴드 이영민 기자

김동길 교수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글’

대통령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 엄동설산에 중국에 가셨습니까. 이달 초 추위에 대표가 중국 공산당 19차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되신 지 8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과 3번째 만남입니다. 국민으로 초대해 놓고 시 주석은 딴 곳으로 피해버리고, 리커창 총리는 점심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 하는 공동성명도 없답니다. 결례를 넘어 인격 모독입니다. 대통령님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을 왜 찾아갑니



김동길 교수

까? 김정은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중국에 대탈려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 중국이 원하던 그 3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불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다가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도 차이고 중국에도 두들겨 맞는 이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란 누구입니까? 유사 이래 우리를 동쪽 오랑개(東夷)라 부르며, 조공을 강요하고 한민족을 노예 취급하던 나라입니다. 가깝게는 6.25때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고, 30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통일을 무산시키고 북한을 헬맹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을 괴롭힐 때 대리만족하며, UN의 재재도 형식적으로 따를 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도 중국입니다. 사드 때문이구요? 왜 일본은 더 멀리 쏘는 것을 중국방향으로 설치해도 말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자유권행사에 시비를 걸며 내정 간섭을 하는지? 중국이 북한 핵무기 제조를 적극 제재했다면 사드 배치도 없었을 테고...

●대통령님, 나는 지난 5월 대선을 기권했습니다. 솔직히 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 중에도 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뜻이 다르고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쨌건 다수가 선택했으니, 문 대통령님은 나의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행위에 더욱 화가 납니다. 중국의 속셈을 압니다. 3불정책을 약속했으니 바로 실행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중국)와 손잡기

로 했으니 미국과 헤어져라.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롯데도 살려 주고 관광객도 보내주고, 그토록 원하는 남북통일도 시켜 주마. 단 통일은 적화통일, 공산주의 통일로.... 주사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의 위험을 여러 언론들이 지적했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귀, 눈, 입, 수족의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 많은 공직의 인사를 몰래해 추천하는 관공서익이 주사파출신입니다. 그 외 수많은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과 공산혁명을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민주정권을 타도하고 포퓰러타리아(노동자) 혁명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전라도, 또 한 사람은 부산출신입니다.

/ JTNTV <http://jntv.kr>에서 이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송년 콘서트

찬양과 경배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베데스다대학교(총장 대행 및 부총장 에스더 조) 음악과 주최 “2017 END OF YRAR CONCERT”에서 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총장 대행 및 부총장 에스더 조) 음악과에서 주최한 2017 END OF YRAR CONCERT가 12월 13일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

다. 예배의 형식이 가미된 콘서트는 시작에 앞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진유철 목사는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기적과 역사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한 후 기도했다.

기도 후에는 영상을 통한 베데스다대학교 학교 소개로 콘서트가 시작되어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음악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최은덕 장로(나성순복음교회 장로회장)가 에스더 조 교수에게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을 전달한 다음 주기도문 봉독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베데스다대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이 합창한 “O Come All Ye Faithful” 곡을 통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학생들의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로운 콘서트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후사 LA크리스천비전 김미경 기자

축 2018 謹賀新年

신간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저자 조영만

- 인현대학교 체육교육과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 M.A)
- 인현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현 연구원 신우회 지도목사
- 시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장인방송 운영이사
- 현제 인현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바(거듭남)을 늦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총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거듭남)을 신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물결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을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위(거듭남)을 의의 결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으로 어린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솜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고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위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사를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9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들기세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7:00)
새벽예배	오전	5:00

교회를 섬기는 분

부 목 사 모성선, 박민수, 성남수, 모성은

협 동 목 사 장정화

전 도 사 윤영옥, 송선택, 띠메트남:신학교유학

협동전도사 추정희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운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김미경

시 무 장 로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철,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 동 장 로 이병화

은 퇴 장 로 고재연, 원복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팩스:(061)276-1006

청와대만 구매한 탄저균 백신에 분노한 민심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인 정부 탄저균 백신 구매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미국산 탄저균백신인 이머전트 500dose 구매 요청을 하면서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Thrax이며, 이 주사제는 한국에는 미허가, 미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만 500명 백



신 구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2월 23일 서울역 애국 집회에 서는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등장

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2월 20일 기사를 통해 북한이 탄저균 ICBM 탑재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이 탄저균을 대한민국에 공격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바,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탄저균 공격에 대한 어떤 대비도, 방책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백신 보급도 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만 백신을 구입해 비난을 사고 있다. 애국 집회에 나온 한 시민은 “국민들은 탄저균 맞아 죽어도 좋고, 지들만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미국에 있는 동포들 역시 한국 문재인 청와대만 백신 구매할 것이 알려지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제공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콘서트’

캐롤송 및 다양한 노래 선보여



지역에서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유명한 복음가수를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마냥 벅차오른다.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소외된 많은 분들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은 줄 믿는다”고 말했다.

LA크리스천비전 이현욱 기자

멕시코 선교사 송년모임 “서로의 사역 격려하고 새힘 얻어”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송년모임이 12월 18일 로사리토(Rosarito)의 칸타마르(Cantamar)에 위치한 프티모 파베아(Primo Tapia)선교센터에서 있었다.

이 모임은 각처의 사역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만남, 교제, 나눔을 통하여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김용인 선교사 부부가 주관하여 이뤄졌다.

이번 송년모임의 1부 개회예배는 이동훈 선교사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김규식 선교사 인도, 이순욱 선교사 기도, 우상배 선교사 설교, 최재민 선교사 축도로 마친 후 김용인 선교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우상배 선교사는 시편 133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2부 점심 오찬은 조성현 선교사의 기도로 소고기 바베큐, 잡채, 김치, 무생채, 오이소박이, 열무김치와 호박죽을 준비해주시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맛있게 먹으며 훈훈한 교제를 나누었다.



3부 게임은 박영원 선교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웃놀이 시간에는 환호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울 한해 격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 보내는 쾌감을 맛보기도 했다.

4부 저녁 만찬은 최종현 선교사의 기도로 맛있는 육개장을 먹고 8시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며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 이번 모임에는 티후아나(Tijuana), 로사리토(Rosarito), 엔

세나다(Ensenada), 멕시코칼리(Mexicali)에서 34가정 56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모였다. 일 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짐으로 그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선교사의 새로운 만남이 있어 감사하고, 서로 바쁜 중에 얼굴 한번이라도 보게 되니 감사하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되니 감사하고,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한 형제가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 56명의 형제들과 이날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뒤에서 힘을 합해준 형제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원하신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최일선의 선교사들이기에, 다가오는 2018년도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나누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크리스천헤럴드 객원기자
이은주 선교사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

은혜한인교회 제32회 은혜성가제/ 28개그룹과 EM이 수준 높은 찬양



풀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성탄의 계절을 맞아 지난 17일(주일) 오후 3시 제32회 은혜성가제를 비전센터에서 개최했다.

서양훈 장로, 올리비아 박 집사, 강석구 장로, 김현진 집사가 1부, 2부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28개 그룹과 EM이 준비한 찬양의 행진곡이 다양하게 펼쳐져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마지막 무대는 은혜한인교회 교역자들이 ‘웃음 있는 나라’(지휘 김대규 목사, 반주 크리스틴 김 집사)를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담임 한기홍牧사는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은혜성가제를 해마다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전 성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가곡을 정성껏 준비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 오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성숙되어 수준 높은 찬양을 준비한 28개 그룹과 EM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동안 이번 성가제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그룹장님들과 교역자님들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우리의 성령이(그룹13) △만물을 화해케 해(대학청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그룹26) △여호수아 성을 쳤네(그룹27) △주 달려 죽은 십자가(그룹7)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그룹9) △마라 나타(그룹11) △오, 해피데이(그룹

19)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그룹3) △송축해 내 영혼(그룹23) △기쁨의 찬양(그룹12) △하나님의 나팔소리(그룹25) △평화의 기도(그룹14) △성탄의 별(그룹 17) △물 이바다 덮음같이(그룹8) △천사의 합창(그룹4)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그룹1) △만민위에 굳게 서리(그룹10) △Declare your maker's praise(그룹24)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그룹22) △위대하신 주를 찬양(그룹18) △내주는 강한 성이요(그룹16) △기쁘게 노래를 하자(그룹 6) △시편 150편(그룹5) △가라 모세(그룹 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그룹28) △성령이여 오소서(그룹 15) △오 거룩한 밤(그룹2) △웃음 있는 나라(교역자) △Mary, Did you Know?(EM)

크리스천비전 이정현 기자

축 2018 謹 賀 新 年

WRTS **세계로신학** **신·인·학**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 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 학술원 학장 명의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화, 수, 목, 토요일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WS **WRTS**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8 표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담임목사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려 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 강도사 : 정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정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i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서울학술세미나 성황 이뤄

성막영성의 비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강권!



송택규 목사(크리스천영성 대표)

송택규 박사는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4층 제2연 수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막영성의 비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송 박사는 미 로드랜드대학원 총장, 크리스천 주필, 저서 성막영성, 묵회자가 나아갈 방향은? 등이 있으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송택규 목사의 주최,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본지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 강사로 나선 송택규 목사는 성막영성의 비밀에 대해 잘 정리된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특히 성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겸종의 비밀이 있다면서 이 모든 비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고, 진정한 성막이신 그 분의 생애를 통하여 밝히 들어났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구원에 있다고 했다. 또한 성경적, 성막적 구원론으로 돌아가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구원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택규 박사는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확실한 사상이 조금이라도 잘못 인식되고 전달 될 때 방향이 틀어지고 목적이 달라진다면서, 방향이 달라질 때 교단이 나뉘고 종파도 갈라지고 심지어는 이단도 생겨난다고 했다. 오늘날 구원의 교리가 왜 각 종파별로 다를 수 있는가? 이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의도하는 올바른 것들인가? 어느 교파의 것이 성경적 진실이요 진리인지를 핵심적 문제로 가려야 하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 하나 통일되지 못한 구원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진리란 것이 입증 되는 셈이라고 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성경 속에서 찾지 못하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성경 학자들에 의해 농단당하여 기독교

가 찢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인간으로서의 원형이 아닌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 맺어지고 갈라졌으며 서로 자기네의 인본적 구원관만이 올바른 구원관이라 내세우며 달려온 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진리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良心)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改革)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일생의 비밀과 기독교 성장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예표해 놓으셨다.

오늘날 더욱 확실한 것은 창조주 우리 인간에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타락으로 떠나셨으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코자 손수 이 땅에 내려오시어 임시 처소인 성막을 지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 이제 때가되매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시키고자 이제 우리 몸속에 영적인 성전을 지어 함께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제21:2-3).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생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생명수가 살고 세계만국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제22:1-3). 바로 하나님은 개혁의 때가 되어 이 구원의 지도를 공개하시는 것이다.

성막 안에는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겸종의 비밀, 하늘 성소의 비밀이 있다. 바로 성막에 담긴 비밀들은 타락한 기독교를 회복하고 타락한 이 땅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크리스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사도요한처럼 제림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고 외치자.

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랑만의 종교가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은 기독교의 핵심적 사상을 말씀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이 율법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 중에서 십일조는 복 받으려고 잘 드리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정신과 기독교사상의 3대축이 들어있다. 즉 첫 번째 의(義)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말하며, 두 번째 인은 주권자의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말하며, 세 번째 신(信)은 공의를 실현키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진리가 없는 사랑이나 진리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며 덕목이다.

바로 이러한 성삼위의 정신이 성막 속에 예표된 구원의 과정을 통해 나타내게 된다. 첫 번째 의(義)의 사상은 1)회막문과 2)성막 뜰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두 번째 인(仁)은 3)번제단(십자가 사건)에서 영적죽음을 통한 칭의를 받게 되고, 4)물두멍 단계로 예수님은 부활이나 우리에게는 중생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입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신(信)은 5)성소와 6)지성소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화와 영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사상이며 구원의 핵심 교리이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교리인가. 성경적 구원교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요 14:6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성막을 통해 단계적으로 예표 해 놓으셨음을 깨달아 알자. 당신은 지금 구원으로 가는 길목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성막 뜰만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설파했다.

한편 이날 70석을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으며 송택규 박사가 건강상 조금 일찍 마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학술세미나는 성황리에 마쳐졌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신년하례회 공고

총회임원						
표어 : 이 총회를 하늘의 장자 총회로 되게 하소서(히 12:23)						
총 회 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회계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전성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진한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진리선교회)

- 진리총회 신년하례 안내 -

- 일 시 : 2018년 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주사랑교회(총회장 장한국 목사시무)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구.내손동)
- 알 림 :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謹賀新年 예정진리총회 대한노회			
노회장	서 기	회의록서기	회 계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 대한노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회장 : 장한국 목사 010-4436-7060

서 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 (031)424-7612



진리총회(대한노회)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구.내손동)

총회장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010-9621-9627 ☎ (031)424-7612 (JTNTV, http://jntntv.kr 지저스타임즈)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예배의 대상

성경: 시편 96:10-13 찬양: 63장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치안부재(治安不在)의 무법천지(無法天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는 도덕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의 공의의 통치로 안정을 얻습니다. 그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악인들은 변명하고 불평할지 모르나, 의인들은 양심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최상의 찬송과 최선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제목: 온 세상의 통치자

성경: 시편 97:1 찬양: 79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섭리자, 통치자, 왕과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섭리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원치

성경: 시편 97:2 찬양: 80장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께 물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두려움과 심오함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주관적 섭리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의 원칙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심오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목: 통치의 결과

성경: 시편 97:3-6 찬양: 64장

하나님의 통치는 두렵습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고 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은 그것을 보고 떨었고 산들은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초)같이 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통치의 일에 번개와 천둥과 벼락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대적자들과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하늘은 그의 의를 선포하며 모든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죄와 불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나타나 때, 즉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 헛된 우상

성경: 시편 97:7 찬양: 76장

‘허무한 것’이라는 원어(엘릴림)는 ‘무가치한 것들, 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며 참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시편 115:4-7,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제목: 참신

성경: 시편 97:8-9 찬양: 400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자이시며 모든 신보다 훨씬 존귀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우상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참신(神)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백성

성경: 시편 97:10 찬양: 406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 기준, 즉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14,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가 징벌하시지만, 악을 미워하고 의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목: 기쁨과 행복

성경: 시편 97:11-12 찬양: 95장

시편 저자는 또 의인을 위해 빛이 뿌려졌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이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쁨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기쁨’은 ‘거룩한 이쁨’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은 섭리자, 심판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빌 4:4; 살전 5:16). 성령의 열매가 기쁨(갈 5:22)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영화로운 노래

성경: 시편 98:1-3 찬양: 620장

시편 저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즉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옛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불렀던 노래이며 그것은 사람 중심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하나님 중심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것의 가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제목: 찬송할 의무

성경: 시편 98:4-6 찬양: 540장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은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즐거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4, 4, 6절) 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처럼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슬픈 자들은 찬송을 부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약 5:13).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찬송할 이유

성경: 시편 98:7-9 찬양: 342장

본문은 특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義)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은 그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불의와 불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제목: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시편 98:1-3 찬양: 77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위해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그분의 영광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십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떨며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본 시편에서 세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모든 죄와 불결로부터 떠나 계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제목: 경배할 이유

성경: 시편 99:4-5 찬양: 621장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증거합니다.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분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공(公)과 의(義)를 행하시고 공의로 도덕질서를 세우시고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시]

열명의 의인이 그리운 조국이여!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가 적화 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는가?
이것도 내일이 아니라 말인가? 내 가족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인권유린을 당하면 그때는 내 일인가?
이기주의 민족이 당할 미래는 볼 보듯 뻔하다.

성직자는

거룩의 싸움을 걸치고 강대상에 서서 무엇을 설교하나?
정의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만

잘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인가?
모든 곳에서 음침하고 짙은 밤새가 진동한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오가는 12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의인 열사람이 없어서 유향과 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회개는 없고 타락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 열 명의 의인이 그리운 조국이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시라!!!

시인 김순희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예덴금식수양관(안화목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엘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강인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성강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9 살롱교회(고영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가정성경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중앙교회(김목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권경환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양매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8-12 네팔산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명연 목사)
12-16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사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0-12 사랑의교회(고정욱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산행생애를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7년 8월
3 안양강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온누리복음화협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현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응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살롱교회(고영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윤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악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목 목사)
14 은천교회(소치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병원)

2018년 2월
21-24 안양성문교회(문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8년 3월
5-8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2018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수도권지역 경기, 여주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축 謹賀新年

전원주택지 1차 택지완료

전원주택 2동 건축, 1동 건축허가, 6동 건축 준비완료

(임야 33㎡ 당 40만원, 약 6600㎡ 매매함)

은행대출 분양가에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 지중화

목회자 · 성도 · 일반인 누구든지 노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여주전원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지 특별분양(70,680,000만원)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330㎡+도로(46㎡)=합계 376㎡)

3.3㎡ 당 62만원 × 376㎡ = 합계 70,680,000만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 8500만원 / 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 / 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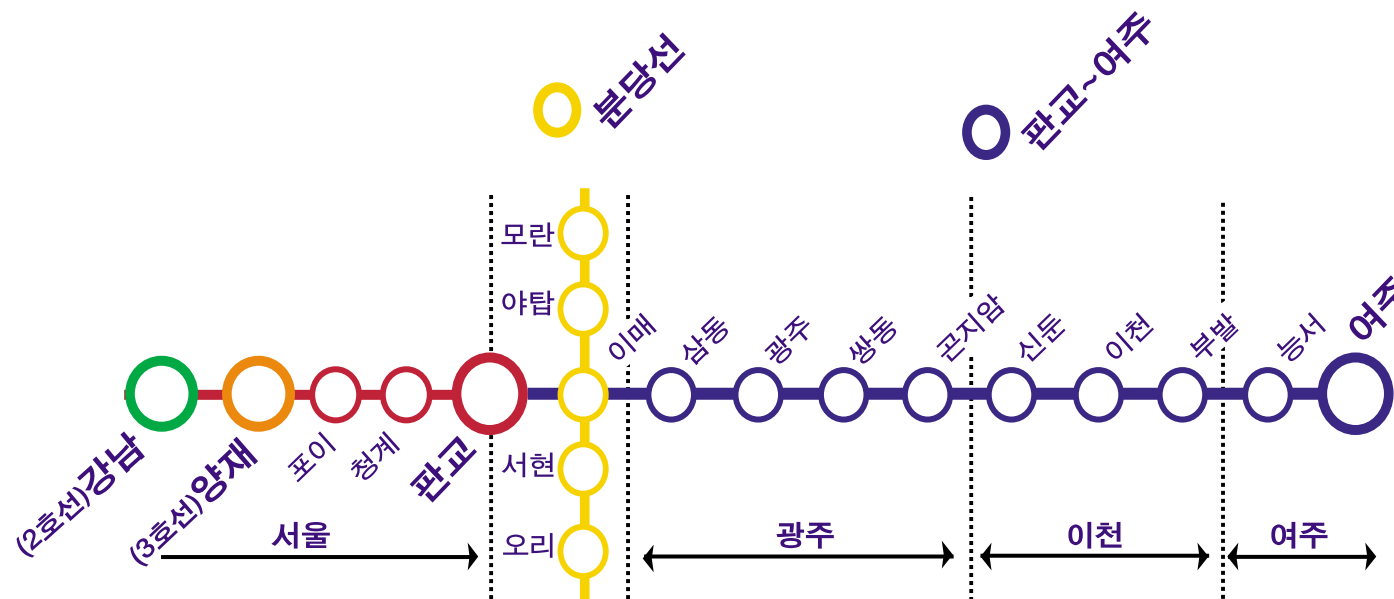
주택 99㎡ (1층 72.6㎡, 2층 26.4㎡)

대지 330㎡, 도로 46㎡, 합계 376㎡



교통 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I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분양
문의 02) 854-1355